‘비장의 카드’ 연금저축… 年 400만원 공제 ‘두토끼’

〈절세·노후〉

연말정산 똑똑하게

(上) 공제혜택으로 세테크

추가납입제도 최대 200% 가능
연금저축+IRP 공제 혜택 ‘UP’
공제율 13.2%… 추가 300만원

올해도 어김없이 연말정산 시즌이 다가오고 있다. 연말정산은 근로자들이 한 해 동안 월급을 받을 때 미리 뗀 소득세(원천징수)를 이듬해 2월에 실제 부담할 세액으로 다시 계산하는 것이다. 환급액을 늘려 ‘13월의 보너스’를 받거나 추가 납입액을 줄여 ‘13월의 폭탄’이 되지 않으려면 남은 12월, 똑똑한 ‘절세전략’이 필요하다. 메트로신문이 연말정산을 꼼꼼하게 준비할 수 있는 방법을 소개한다. 〈편집자주〉

연말정산 시즌이 되면 ‘세테크(세금+재테크)’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다. 연금저축은 세액공제 혜택을 크게 누리면서도 노후도 대비할 수 있는 대표적인 절세 금융상품이지만 잘 몰라서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다.

연말정산 절세상품 혜택 방안

구분	혜택 방안
연금저축	연금저축신탁(은행), 연금저축보험(보험), 연금저축펀드(증권) 연 400만원 한도 내 13.2% 세액공제 연 종합소득 4000만원총급여 5500만원 이하는 16.5% 세액공제 55세 이후 연금수령 시 인출액에 3.3~5.5% 연금소득세 부과
개인형 퇴직연금(IRP)	연 700만원 한도 내 13.2% 세액공제 연 400만원 한도에 추가로 300만원까지 가능

연금저축은 연간 최대 1800만원까지 납입이 가능하며 연간 400만원 한도 내에서 연봉이 5500만원 이하 근로자는 16.5%, 그보다 높으면 13.2%의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세제혜택을 받지 못한 추가불입액은 세금 부과 없이 자유롭게 중도 인출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다.

운용기간에는 세금을 내지 않고, 55세 이후 연금으로 수령 시에는 인출액에 대해 3.3~5.5%(연간 1200만원 이하 수령 시 분리과세 기준)의 낮은 연금소득세가 부과된다.

단 연금저축은 세액공제 혜택이 쏠쏠하지만 55세 이전 중도 해지할 경우 세제 혜택을 받은 납입금액과 운용수익에 대해 16.5%의 기타소득세가 부과된다는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연간 연금수령액이 1200만원이 넘고 별도의 금융소득이 있다면 모든 금융소득이 합산돼 20%이상 종합과세가 적용되는 점도 주의해야 한다.

연금저축 상품은 소득세법에 따라 판매하는 연금저축신탁(은행), 연금저축보험(보험), 연금저축펀드(증권) 등 크게 3가지가 있다.

연금저축보험·신탁은 수익률이 1~2%대로 낮은 편이지만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5000만원 한도 내에서 원리금이 보장된다. 반면 연금저축펀드는 원금을 보장하지 않는 대신 펀드 수익률을 노릴 수 있다. 반대로 손실도 볼 수 있다.

만약 이미 연금저축보험을 가입했다면 추가납입제도를 활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상여금 등 추가로 납입할 수 있는 여유자금이 있다면 연 400만원의 세액공제 한도를 채워 절세 혜택을 늘릴 수 있다. 상품이나 회사별로 차이가 있지만 보통 최대 200%까지 가능하다. 추가납입금에는 사업비가 적게 적용되기 때문에 수익을 더 높일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연금저축과 개인형 퇴직연금(IRP)을 함께 활용하면 세액공제 혜택을 최대로 누릴 수 있다. IRP는 700만원까지 세액공제되는데 연금저축과 IRP를 동시에 가입한 사람은 연금저축 세액공제 한도(400만원)에 추가로 300만원까지 가능하다. 세액공제율은 13.2%다.

연금저축 가입자가 연 종합소득이 4000만원 이하이거나 총 급여액이 5500만원 이하면 공제율이 16.5%로 올라간다. 만약 연금저축 가입 5년 이내에 중도해지를 하면 그전에 공제받은 세금을 내야 한다.

한편 실손보험이나 암 보험 등 보장성 보험 가입자도 연말정산 시 연간 100만원 한도 내에서 보험료의 13.2%에 해당하는 금액을 세액공제 받을 수 있다.

보장성보험의 보험료 세액공제 요건은 소득세법에 근거해 근로소득자 본인이나 연소득 100만원 이하인 가족에 대해 받을 수 있다. 배우자를 제외한 가족은 직계존속(부모님)의 경우 만 60세 이상, 직계비속(자녀)은 만20세 이하라는 연령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는 저축성보험의 경우에는 보험차익(보험금-총납입보험료)에 대한 이자소득세(15.4%)가 면제된다. 다만 비과세 요건이 다소 까다롭다. 소득세법에서는 보험유지기간이 10년 이상이고 일시납 보험계약의 경우 1억원 이하의 보험계약, 월납 보험계약의 경우 보험료 납입기간이 5년 이상에 매월 납입보험료가 150만원 이하여야 한다.

금융권 관계자는 “더 많은 환급을 받고 싶거나 ‘세금폭탄’이 우려되는 경우 연금저축 상품을 가입하는 방법을 추천한다”며 “자신이 가지고 있는 상품 중 소득공제가 되는 상품이 있는지도 알아봐야 한다”고 말했다.

/김희주 기자 hj89@metroseoul.co.kr

하이브리드형 맞춤 ‘디지털 자산관리’

신한은행 ‘쏠리치’

신한은행은 신(新)디지털 자산관리 서비스인 ‘쏠리치(SOL Rich)’를 출시했다고 13일 밝혔다.

쏠리치는 하이브리드형 알고리즘을 자체 개발해 탑재했다. 과거 데이터 기반의 인공지능 예측만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판단해 IPS(투자상품서비스)본부 전문가들의 시장예측과 빅데이터 기반 인공지능 분석결과를 결합한 알고리즘이다.

또 펀드상품, 자산배분 비중의 쏠림도 등 고객이 보유한 상품현황을 매일 진단하고, 최적의 모델 포트폴리오 추천 및 사후관리까지 제공해 그동안 모바일 환경에서는 접해볼 수 없었던 차별화된 맞춤 서비스까지 경험할 수 있게 됐다.

퇴직연금 1위 사업자인 신한은행은 퇴직연금 자산관리 노하우도 디지털 기술로 최적화해 쏠리치에 담았다. 신한은행만의 퇴직연금 자산배분 프로그램인 ‘신한 글라이드 패스’를 개발해 고객의 은퇴 시점을 고려한 연령에 따른 자산배분기준을 제시해준다. 글라이드 패스는 비행

기가 착륙할 때 그리는 경로를 의미하는 것으로 투자자의 퇴직연금을 사회 초년기에는 주식 비중을 높이고 은퇴 시점이 가까워지면 주식 비중을 낮춰 운영하는 방식으로 이번에 자체 개발해 특허 출원을 준비 중이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향후 쏠리치의 멀티 알고리즘의 개선를 통해 더욱 정교한 자산관리 서비스를 제공하고, 대면·비대면 채널 모두 손색없는 최적의 자산관리 솔루션을 제공할 수 있도록 쏠리치의 상품군을 확대 적용해 종합 자산관리 플랫폼으로 업그레이드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안상미 기자 smahn1@

DSR 규제 피하자… 11월 가계대출 8조 증가

전년 동월 대비 2조원 감소
제2금융권 대출증가세 둔화

지난달 가계대출이 8조원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지난 9·13 부동산대책의 후속조치인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에 앞선 선수요와 전세대출 증가 등의 상황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은행권의 가계대출은 주택담보대출을 중심으로 증가세를 이어갔지만 제2금융권의 대출 증가세는 크게 둔화했다.

금융위원회화 금융감독원이 13일 발표한 ‘11월 중 가계대출 동향’ 자료를 보면 1~11월간 전 금융권의 가계대출 증가 규모는 68조5000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16조원 감소했다. 지난 11월 중 가계대출은 8조원 증가해 지난해 동월(10조원) 대비 2조원, 전월(10조4,000억원) 대비 2조4000억원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

업권별로 보면 은행권을 중심으로 가계대출 증가세가 두드러졌다. 은행권 가계대출은 6조7000억원 증가해 지난해 같은 기간(6조6000억원) 대비 1000억원 증가한 반면 전월 대비 1조원 감소했다. 주택담보대출은 지난달 대비1조3000억원 증가한 4조 8000억원을 기록 했다. DSR 시행을 앞두고 선수요가 있던 데다 주택도시기금의 버팀목인 전세대출 9000억원이 은행 주담대에 포함돼서다.

반면 제2금융권의 가계대출 증가세는 크게 둔화됐다. 제2금융권 가계대출은 11월 중 1조3000억원 증가해 전년 동월 대비 2조1000억원 전월 대비 1조4000억원 축소됐다. 주택담보대출은 지난달 4000억원 줄었고 기타대출은 1조6000억원 늘었다. 정책규제로 인해 가계대출 규모가 감소세에 접어 들었다는 분석이다.

제2금융권 중 신협 새마을금고등 상호금융과 보험은 각각 5000억원씩 증가했다. 저축은행도 3000억원 증가했다. 반면 카드 캐피탈 등 여신전문금융회사는 1000억원 감소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9·13대책 후속조치, 은행권 DSR 시행 등이 안착될 수 있도록 금융권 가계대출 취급 상황을 지속 점검하겠다”며 “내년 상반기, 제2금융권에도 DSR 관리지표가 차질없이 도입될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나유리 기자 yul115@

빅데이터·AI 기반 투자정보 제공

신한금융투자 ‘고수들의 비법노트’

신한금융투자는 빅데이터와 인공지능 기반의 고객 맞춤형 투자정보를 제공하는 ‘고수들의 비법노트’ 서비스를 실시한다고 13일 밝혔다.

‘고수들의 비법노트’는 신한금융투자 개인고객들의 주식거래를 포함한 다양한 데이터를 활용해 투자 성향을 분석하고 각 유형별 고수(수익률 상위 20%)들이 최근 투자한 종목 리스트를 제공하는 서비스로 신한금융투자 MTS인 ‘신한아이 알파’에서 이용 할 수 있다.

‘고수들의 비법노트’에서는 포트폴리오 구성방법, 거래 규모, 거래 횟수 등의 데이터를 바탕으로 하드 트레이더, 리스크 챌린저, 멀티 컬렉터, 스톡 비기너, 블루칩 테이커, 리치 피플, 에그머니로 투자자를 분류한다.

각 유형별로 가장 많은 고객들의 보유 종목, 매수 종목, 매도 종목 및 수익률 데이터를 제시한다. 또한 본인의 유형에 해당하는 고객들의 성별, 연령, 자산규모, 자산대비 주식투자비중, 우량주 매매 비중, 평균 보유 종목수, 연간 평균 매매거래 횟수 등 많은 투자들이 궁금해하나 누구도 시원하게 말해주지 않는 데이터를 알기 쉽게 그래프를 통해 보여준다.

/김문호 기자

왼쪽부터 빈대인 부산은행 은행장, 황호선 한국해양진흥공사 사장. /BNK부산은행

BNK부산은행-해양진흥公

해운항만산업 발전 MOU

BNK부산은행은 13일 부산광역시 문현금융로 부산은행에서 한국해양진흥공사와 해운항만산업의 경쟁력 확보와 발전 기반 조성을 위한 해양종합금융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한국해양진흥공사는 우리나라의 해운 경쟁력을 강화를 목적으로 부산에 설립된 정부출자기관이다.

부산은행은 설립 후 50여년 동안 지역경제의 중요한 자금유통 창구역할을 수행했다.

/배한님 수습기자 ericabae1683@

서울 아파트값 5주 연속 하락… 전세도 약세

매매가 전주 比 0.05% ⬇

서울 아파트값이 5주째 내리막길을 타고 있다. 전세값도 낙폭이 커지는 등 약세를 이어갔다.

한국감정원은 12월 2주(10일 기준) 전국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을 조사한 결과, 매매가격이 지난주 대비 0.05% 하락했다고 밝혔다.

지난주(-0.06%)보다 내림 폭은 줄었으나 5주 연속 하락세를 이어갔다.

강남도 지난주(-0.08%)보다 내림폭이 둔화한 -0.08%로 나타났다. 재건축 및 그간 급등 단지에서 급매물이 나오고, 매수관망세가 짙어지며 11개구 모두 하락했다. 다만 서초구(-0.24%→-0.15%) 내 정비사업 진행 영향 등으로 전체적으로 지난주 대비 하락폭이 소폭 축소됐다.

강북 14개구는 지난 주 수준(-0.04%)을 유지했다. 중구(0.00%→0.00%)의 아파트값이 보합 전환된 가운데 급등 피로감, 거래절벽 지속, 매수심리 위축으로 강북구 모두 보합 또는 하락하며 지난주 하락폭을 유지했다.

지난주 약세로 전환한 경기도의 아파트값은 -0.01% 하락해 지난주(-0.03%)보다 내림폭이 축소됐다. 평택(-0.06%)·하남(-0.02%) 등은 지난주보다 하락폭이 커졌다. 이에 비해 구리시(0.35%)와 수원 장안구(0.31%)는 개발 호재, 인근 아파트값과 ‘키 맞추기’ 영향 등으로 강세를 보였다.

인천은 0.03% 오르며 전주의 상승폭을 유지했다. 서구의 아파트값은 검단신도시 대비 저평가 지역과 신규분양 및 교통호재 영향으로 0.19% 상승했다.

지방 아파트값은 지난주와 마찬가지로 0.07% 하락했다. 전국 아파트값도 지난주(-0.05%)와 같은 수준의 낙폭을 유지했다.

/채신화 기자 csh9101@